

공산당의 <무신론>은 민족 문화를 훼손시키는 독약 (련재-7)

5. 문명 회귀의 대조류

(1) 과학이 직면한 도전

300년 동안 서양과학 문명은 급속한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그 기점을 유형적인 물질세계에 국한시켜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실증과학을 탄생시켰다. 이 실증과학의 가장 큰 맹점은 그것이 정신을 실증하지 못하고 정신과 물질의 관계 및 정신과 물질의 작용을 실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바로 정신과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과학이 인식하고 있는 범위가 국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탐구 정신이 있는 과학자들은 실증과학이 지난날 회피했던 영역에 발을 들여놓아 사람들의 시야를 넓혀주었다. 룬회 및 환생에 대한 연구에 관해 과학자 이안스티븐슨은 풍성한 성과를 올렸다. 그의 <룬회 20개 사례>,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룬회환생과 생물학> 등 저서는 뛰어난 학술리론으로서 사회 전반에 걸쳐 룬회환생에 관한 연구를 인정 받게 하였다. 그의 저서중, '림종체험에 관한 연구'는 룬체가 죽은 후의 령혼활동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증명하였고 다른 공간의 존재와 각개 다른 생명체의 형식 등을 입증하였다. 그의 학술적인 성과가 대량의 저서와 함께 발표된 것은 이미 전통적인 실증과학의 틀과 결론을 돌파한 것이다. 비록 그의 리론을 실증과학의 고정적인 패턴으로는 해석할 방법이 없지만 오히려 '무신론'에 크게 도전장을 던졌다. 이 연구과정을 관찰해보면

전통 실증과학의 실험, 환원, 분석, 론증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생명 및 인체에 대해 직접 연구하고 개괄한 것이다. 실제로 다른 공간의 문제나 룬회론 등은 중국 전통 문화에서는 아주 평범한 주제에 불과하다. '풍채가 넘친다(神采飛揚)', '마음으로 리해한다(心領神會)', '신래신왕(神來神往)' 등 말의 참뜻을 지금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다. 옛사람들은 이 말은 단순한 형용이 아니고 다른 공간에서 실제적으로 체현되고 있는 생명형식을 보고 체험했던 것이다. 인간보다 더 고급적인 생명의 존재, 사람의 림종체험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죽는순간 자신의 일생중의 모든 행위(이 공간에서의 행위는 마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 같지만 다른 공간에서는 오히려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를 똑똑히 보게 된다. 그리고 그 특수한 순간에 사람은 자신이 일생 중에 저지른 좋지 않은 모든 일들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며 참회한다. 조사에 따르면 림종 체험을 했던 많은 사람들은 환생한 후에 인생관이 변하여 선량하고 적극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명예와 리익 및 욕망에 대해 비교적 담담하게 대하게 된다고 한다. 이것은 '과학'만능 시대인 오늘날 예전에 왜 덕(德)을 중시하고 선(善)을 행하도록 하는 오랜 전통이 있었는가를 증명한 것이다.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신(神)을 믿는 것은 사교(邪教)가 아니며 '사람을 마취시키고' 사람을 놀라게 하는 '정신 통제'도 아니다.

제 1 차 전세계 중국무용 시합은 신전문화 부흥의 이정표를 만들었다



지난 7월 8일 오후 1시 30분, 뉴욕 맨하탄에서 제 1 차 전세계 중국무용시합은 우리와 같은 박수갈채 속에서 막을 내렸다. 전례없이성대하게 열린 이번시합은 전세계에 중화민족의박대한 신전문화의 내포를 보여주었으며 순수하고도 진실하며 착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인류의 예술궁전을 열어놓았다.

지난 7월 8일 오후 1시 30분, 뉴욕 맨하탄에서 제 1 차 전세계 중국무용시합은 우리와 같은 박수갈채 속에서 막을 내렸다. 전례없이성대하게 열린 이번시합은 전세계에 중화민족의박대한 신전문화의 내포를 보여주었으며 순수하고도 진실하며 착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인류의 예술궁전을 열어놓았다.

캐나다 목동절(牛仔节)에 파룬궁이 특수상을 받았다.

지난 7월 6일, 캐나다 칼가리에서 열린 목동절행사에 참가한 파룬궁대오가 <견인한 용기상>, <귀빈명인상>, <목동절특별상>을 탔다.



사진은 행사조직 위원회에서 발급한 <귀빈명인상>을 받은 파룬궁수련생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현재 탈당 2386 만여명

7 월 19 일 현재 탈당 인수는 2 천 3 백 86 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만약 어느날 신이 인류의 누구를 지시하여 공산 당에 대해 청산할 때 꼭 그런 소위 견정한 사악한 당원들을 역시 가만 놔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은 정중하게 성명한다. 모든 공산당과 공산당의 기타 조직 (사악에 의해 짐승의 기호를 새긴)의 사람들은 빨리 퇴출하여 사악의 기호를 없애버리라. 일단 누가 이 마교를 청산할 때 대기원에 저장한 기록은 공산당과 공산당의 기타 조직을 퇴출한다고 성명한 사람들에게 증명을 설 수 있다. 천지자연의 법칙은 넓은 그물과 같아서 어떤 죄인 도 빠져나가질 못하고 선악은 분명하며 고생은 끝이 있고 생사는 일념에 달렸다.

홍콩에서 가장 큰 인권추문이 일어난다

홍콩반환 10 주년 전야에 대량의 대만파룬궁 학원들이 합법적인 서류를 들고 홍콩 7.1 시위행



폭력압송현장

진에 참가하려고 입국을 시도하였으나 며칠동안 홍콩해관에서 800 여명 대만 파룬궁학원들의 입국을 거절하고 폭력으로 그들을 압송하여 되돌려보냈다.



토 | 막 | 소 | 식

▶ 法輪大法(파룬따파)경서 12 권이 또 정식출판되었다. 12 권 중에는 리홍지(李洪志) 사부님의 『휴스턴법회설법』, 『음악과 미술창작회설법』, 『2005 년 샌프란시스코설법』, 『2004 년 뉴욕 국제법회설법』, 『로스앤젤레스시설법』 및 각 지역 설법 7 권이 포함되어 있다.

▶ 지난 6 월 28 일, 홍콩 파룬궁 수련생 주가명(朱柯明)과 부학영(傅學英)은 홍콩 고등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출해 중국에서 파룬궁 탄압을 주도한 전 중공 당 두목 강택민, 전 부총리 리란청과 현 중공정치국상임위원 라간 등 3 명을 고문, 상해, 불법감금, 직권람용 등의 죄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강택민에 대한 제 18 번째의 소송이다.

▶ 지난 7 월 3 일 파룬궁박해진상연합조사단 유럽분단은 콘돈외국기자구락부에서의 연합뉴스발표회의에서 유럽인권성화(聖火)대회를 정식 선포했다. 한달후 전세계인권성화올림픽발원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불을 지피게 될 것이다.

백성루 화재의 경시(警告)



지난 5 월 26 일, 료녕성조양시백성루식당총부에 큰 화재가 일어났다.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30 여명이 사망되었고 근 20 여명이 상처를 입어 불구가 되어 치료중이라고 한다. 이 식당에서는 이미 배상금 1000 만원을 지불했다. 이번 화재에서 파룬궁진상을 알고 대법을 지지하여 악당에서 퇴출한 사람들은 재화를 면하였다.

한 은행주인은 이전에 악당의 거짓선전을 듣고 대법을 적대시했다. 대법제자들이 여러차례 그에게 파룬궁진상을 알려서야 겨우 <3 퇴> 했다. 이날 그는 여러 손님들을 모시고 백성루총부에 가 식사를 하려고 금방자리에 앉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초조하여 밥먹을 생각이 없었다. 그는 손님들을 거느리고 부근에 있는 술집으로 옮겨갔다. 금방 볶음채가 상에 오르자 백성루에 큰 불이 일어났다.

백성루총부의 한 요리사는 어머니한테서 파룬궁진상을 듣고서 <3 퇴>했다. 화재가 발생하기 며칠전에 아무 이유없이 마음이 답답하고 부산하여 출근할 생각이 없었다. 이 식당에서는 할수없이 립시 다른 사람을 쓰게 되었다. 화재가 지나간후 이 요리사의 어머니는 대법제자를 찾아 <나의 아들을 구해준 대법과 대법제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하고 감동되어 말했다.

이번 화재는 악당들에게 속히우지 않고 대법을 적대시 하지 않으면 큰 재화를 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향양소학교 교장 우해봉은 악당들의 거짓선전에 속히워 대법을 비방하였는데 이번 화재에서 죽음을 면치 못하였다.

한 향양경찰 백려만은 악당의 가짜선전을 믿고 법륜공을 적대시했다. 그는 백성루 1 층에서 밥을 먹다 무슨 귀신에게 홀리운 것처럼 3 층에 올라가 술을 부었다. 큰불이 일어나 3 층이 막히게 되자 그는 2 층 베란다로 뛰어내렸지만 뒤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에게 짓밟혀 죽었다.

백성루의 화재는 곧바로 하늘이 세인들에게 준 경시인바 대법을 선량하게 대하고 악한 짓을 멈춰야만 자신과 가족이 평안과 아름다운 미래가 있을 수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긴급통지 며칠전 연길시공안국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모단위에 와 99 년이후 로동개조와 판결을 받은적 있는 대법제자를 다시 등기하라고 요구했다.이에 세인들은 각성하여 악당의 선동에 동조하지 말고 악인들은 박해를 곧 중단하고 자신의 생명을 책임지기 바란다.